

위험한 김문수의 극우교과서

김문수 후보는 극우교과서를 이미 실행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우리나라 국사가 잘못됐다”며 4,600만원을 들여 ‘경기도 현대사’를 제작했습니다.

김 후보의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는 김 후보의 정신적 스승이자 뉴라이트 재단 초대 이사장인 안병직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집필은 안병직 교수의 수제자인 이영훈 교수가 담당했습니다. 책이 완성되자 이영훈 교수를 초빙해 신규 공직자 교육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가관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거치는 동안 한국사회는 슬슬 근대문명의 사회로 바뀌었다”며 일제의 지배를 미화하고 “제주 4.3사건은 제주도의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저항하여 일으킨 무장봉기”라며 폄하합니다. 김구 선생을 두고는 “측근에까지 침투한 북한의 공작”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끝까지 반대.... 건국사에 상처를 남겼다”고 폄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가의 단체였지 영토, 국민, 주권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는 아니었다”며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임시정부의 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세력과의 사실상의 전쟁을 지휘”하였다면서 “그 보이지 않은 전쟁의 와중에서 국회가 추진한 반민특위의 활동은 반공의 전설을 무너뜨릴 위험성”을 내포했다고 반민특위를 깎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4·19와 5·16은 겉으로는 상극적이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연속적인 측면을 가지는 사건”이라는 해괴망측한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김 후보는 이런 책을 두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책”이라며 극찬했습니다. 그간 “김구는 중국인”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 이라 쏟아냈던 망언의 뿌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김 후보 본인의 생각은 자유이겠지만, 교과서를 만들어 공무원들을 세뇌하려 한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문수의 나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김구는 중국인이라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의 왜곡된 극우 역사관이 우리 사회 주류 역사관이 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김 후보의 위험한 ‘문수사상’을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

(사진후첨)

붙임. 경기도현대사 표지 및 본문

MONO1201643181
951.7 -16-37



경기도현대사

京畿道現代史

I 편 대한민국편(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II 편 경기도편(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요컨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거치는 동안 한국사회는 슬슬 근대문명의 사회로 바뀌었다. 일본 역시 서유럽으로부터 근대문명을 받아들인 국가이다. 그 근대문명의 법과 제도가 일본의 지배를 통해 한국으로 이식되었다. 근대문명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이다. 식민지라는 종속적이며 왜곡된 환경에서도 그러한 문명의 요소는 이식되고 확산하였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문명사의 대전환' 과정에서 생겨난 국가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새로운 문명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 것이다.

19

제주4·3사건은 제주도의 공산주의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저항하여 일으킨 무장 봉기였다. 봉기를 주도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책임자인 김달삼은 8월 북한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여 투쟁 결과를 보고하고 북한 정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김달삼은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북한의 혁명열사릉에 묻혔다. 무장 항쟁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 작전은 과도



<그림 1-29> 4.3사건 진상조사단
(출처: http://blog.daum.net/jesus_love)

하게 잔인하였다. 그에 따라 무고한 양민의 인명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양민과 반란세력의 구분이 쉽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군정의 낮은 인권 의식이 그 같은 참극의 배경을 이루었다.

72

요컨대 1947년 후반 이후 김구를 소외시킨 남한의 정국과 민족주의를 최고 수준으로 하는 그의 정치이념이 그의 노선 전환을 유인하였다. 거기에서 전술한대로 김구의 측근에까지 침투한 북한의 공작이 다른 한편의 힘으로 작용하였다. 1948년 이후 김구는 '통일독립'을 주장하는 도덕적 정치가로 변신해 갔다. 그가 과연 미소 양군이 철수한 뒤 남북 간의 전쟁이 없을 것으로 믿었는지는 회의적이다. 역사는 그의 예언과 반대로 남한에서 미국군이 철수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이 터졌다. 어쨌든 그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을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는 자"라 했던 그의 매도는 그를 존경하는 한국인의 가슴에 긴 유언으로 남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끝까지 반대하였지만 오늘날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의 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비극적 죽음은 대한민국의 건국사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어떤 사람들은 1919년 중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이미 건국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가의 단체였지 영토, 국민, 주권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는 아니었다. 그런 국가를 세우고자 피를 흘린 독립운동의 열사들이 세운 단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1948년 영토, 국민, 주권의 요건을 갖춘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열매를 맺었다.

십만의 좌익세력을 검거하고, 전향시키고,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매일 군과 경찰의 수뇌부와 회동하면서 공산주의세력과 사실상의 전쟁을 지휘하였다. 그 보이지 않은 전쟁의 와중에서 국회가 추진한 반민특위의 활동은 반공의 전선을 무너뜨릴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박정희의 5·16세력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지만 이승만의 커다란 건국 유업에 두 발을 딛고 있었다. 4·19와 5·16은 겉으로는 상극적이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연속적인 측면을 가지는 사건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의 국가체제가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의해 세워졌다면, 4·19와 5·16은 그 토대 위에서 국가경제의 공간을 채우는 역사적 과제를 추구하였다. 다시 말해 4·19와 5·16은 '나라 만들기'의 제2단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